

##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애 2장)

### I. 예레미야 애가, 2장

- A.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538년에 기록되었으며, 3차 바벨론 포로 이송 이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그 배경이다. 유대인들은 매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으며 (스 7:3, 5), 이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BC 586년 이후에 기록되었다.
- B. 20세기의 기독교 지성으로 불리는 프란시스 웨퍼는 "예루살렘 성의 죽음" (Death in the City)이라는 책으로 현대 사회를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 당시의 예루살렘과 비교하며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정리했다.
1.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 종교가 정신적인 영역으로 분류되며, 국가적인 일을 하나님과 결부해서 해석치 않음
  2.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 선지자들이 사회적으로 동의된 메시지만 말함
  3.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뢰함**: 현대의 Post-Christian 세계(기독교가 더 이상 세계를 이끄는 종교가 아니며, 무신론과 세속주의로 대체됨)와 동일한 모습
- C. 예레미야 애가 1장은 위로받을 곳이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심을 노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런 의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 그분만이 의로우심을 발견하게 된다.
- 18 여호와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애 1:18)**
- D. 예레미야 애가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3절), 오히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다 (17절). 예레미야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미리 정하신 일과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으로 애곡하며 노래하고 있다 (17절).
- 17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애 2:17)**
- E.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

그분의 규례를 잘 따를 때에 부여될 축복과 (신 28:1-15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을 떠날 때에 임할 저주에 대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 (신 28:16-29:29 + 레 26장). 예레미야는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다.

**1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 <sup>36</sup>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 가시리니 ... <sup>37</sup>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신 28:15-37)**

F. 지나가는 모든 자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 비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애 2:15-16), 예루살렘은 눈물과 애통함으로 부르짖게 되었다 (애 2:18-19). 우리는 한 나라가 이와 유사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말씀이 없는 자와 같이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나가지 않으며 (사 55:11), 우리가 만홀히 여길 대상이 아니다. 신명기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그 성취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보이신다.

**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 (사 55:11)**

G.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신 30장).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실 때, 혹시라도 “마음을 찢는 모양”만 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그분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출 34:14),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찢어지기를 기다리신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행동의 변화나 재물이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수 많은 “설마”를 돌파하시는 분이다.

**14 ...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고후 12:14)**

H.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시즌을 거절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즌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1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sup>2</sup>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sup>3</sup>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sup>4</sup>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sup>5</sup>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전 1:1-4)**

I. 애 2:19절에서는 또한 이 재난 가운데 “너희 자녀”(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다.